

마태오 복음서 11장

- 1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과(5,1-7,29) 행동으로(8,1-9,34)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 이에 대한 세례자 요한(11,2-9), 갈릴래아인들(11,20-24), 그리고 바리사이들의 반응(12,1-45)이 이어진다.¹⁾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다(루카 7,18-23)

- 2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헤로데가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자, 요한은 그 일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헤로데는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두었다.²⁾

- 3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³⁾

1) “오실 분”은 메시아를 가리킨다.

2)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명을 지닌 요한은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1) 예수님께서서는 이사야 예언서의 내용을 들어 대답하시면서,⁴⁾ 당신이 메시아이심

1)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95쪽, 각주 2 참조.

2) 마태 14, 3-12 참조.

3) 사도 13,25 :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다.’

4) 이사 26,19(죽은 이들) : 당신의 죽은 이들이 살아나리이다. 그들의 주검이 일어서리이다. 먼지 속 주민들아, 깨어나 환호하여라. 당신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기에 땅은 그림자들을 다시 살려 출산하리이다.

29,18(귀먹은 이들) : 그날에는 귀먹은 이들도 책에 적힌 말을 듣고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을 의심 없이 믿는 이는 행복하다 답하신다.

- 2) “의심”은 예수님 편에 서느냐 반대편에 서느냐를 가늠한다. 그에 따라 심판이 좌우된다.⁵⁾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다(루카 7,24-35)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돌아가자, 세례자 요한의 소명이 무엇이고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예수님께서 증언하신다.

-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 12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 13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 14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 15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 1) “하늘나라” 곧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다. 세례자 요한은 그 입구에 서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요한 사이에는 일종의 단절, 일종의 근원적인 새로움이 있다.⁶⁾
- 2) “폭력을 쓰는 자들”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자들이다

35,5-6(눈먼 이들, 귀먹은 이들, 다리저는 이들) :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61,1(가난한 이들에게 선포되는 기쁜 소식) :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5) 앞, 96쪽, 각주 6 참조.

6) 위, 각주 8.

3)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한 엘리야요(말라 3,23 참조), 옛 계약의 시대를 마무리하러 온 마지막 예언자이다.⁷⁾

16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17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18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19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론 일로 드러났다.”

1) “지혜”는 하느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지혜는 ‘의롭다’라고 판명이 난, 곧 “이 세대”의 반대에도,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탕으로 옳다고 인정되고 또 그렇다고 선포된 하느님의 구원의 뜻을 가리킨다.⁸⁾

2) “이 세대” 곧 믿음이 없는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였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지도 않으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악을 행하지도 않으셨다. 오직 하느님의 “지혜”로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루카 10,13-15)

20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 “불행하여라, 너 코라진아!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⁹⁾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¹⁰⁾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¹¹⁾

7) 위, 97쪽, 각주 10.11 참조.

8) 위, 각주 17 참조.

9) 코라진은 카파르나움 북서쪽 3-4km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벳사이다는 요르단 강이 갈릴래아 호수 북쪽으로 흘러가는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약 2km 지점에 있었다(위, 각주 18).

10) 즈카 9,2-4 : 그 가까이에 있는 하맛도 매우 지혜롭다는 티로와 시돈도 그분의 것이다. 티로가 요새를 세우고 은을 흠처럼 쌓고 금을 거리의 진흙처럼 쌓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티로를 쫓아내시고 그 재물을 바다에 처박으시며 그 성읍을 불이 집어삼키게 하시리라.

11) 다니 9,3 : 그리하여 나는 단식하고 자루옷을 두르고 재를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탄원하려고 주

- 22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 23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 성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¹²⁾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¹³⁾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 24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 1)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마음이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신다.
- 2) 자루옷을 뒤집어 입는 행위는 회개의 외적인 표시이다. 공공연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이다.¹⁴⁾
- 3) 사람은 모두 하느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옳고 그른 행위와 선하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말씀을 듣고도 완고하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말씀은 듣지 못했어도, 그 사람의 생활이 말씀에 부합했다면 받을 상은 크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루카 10,21-22)

-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¹⁵⁾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 27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느님께 얼굴을 돌렸다.

- 12) 이사 14,13-15 : 너는 네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좌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그런데 너는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 13) 2베드 2,6 : 소돔과 고모라 두 고을은 멸망하도록 단죄하시고 잿더미로 만드시어, 불경한 자들에게 내릴 벌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 14) 예레 6,26 : 내 딸 내 백성아, 자루옷을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구슬피 통곡하여라. 파괴자가 순식간에 우리에게 덮쳐 올 것이다.
 - 15) 토빗 8,5 : 사라가 일어나자 그들은 기도하며 자기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였다. 토비아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하늘과 당신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 사도 17,24 :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 1) “철부지”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한 이, 지혜를 갖추지 못한 이를 가리킨다. 여기서의 일차적으로 제자들이다. 바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일¹⁶⁾ 곧 하늘나라의 신비가 계시된 것이다.¹⁷⁾
- 2)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 곧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드님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하느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다.¹⁸⁾

내 멩에를 메어라

2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멩에를¹⁹⁾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²⁰⁾

30 정녕 내 멩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 1)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는 무감각하고 불신앙에 빠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말씀이다. 또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을 안식으로 초대하신 것이다.
- 2) “멍에”는 유다교에서 일반적으로 기록되거나 구두로 전해지는 ‘하느님의 법’을 가리킨다. 그들은 이 멩에가 무겁다거나 사람들을 짓누른다고 여기지 않았다, 즉 멩에의 기쁨을 알고 있었다.²¹⁾
- 3)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멩에에 자유를 더해 주신다. 곧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멩에를 받아들임에서 오는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선포하시

16) 다니 2,29 : 임금님, 임금님께서 침상에 드시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 생각이 오셨습니다. 그때에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17) 앞, 98쪽, 각주 20.21 참조.

18) 마태 16,17 :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냐,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요한 6,44 :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19) 멩에 : 두 마리의 소나 나귀 등의 목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끄는 목제 도구(민수 19:2 참조) 혹은, 전쟁 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는 굴종의 도구(1열왕12:9 참조). 이때는 상징적으로 억압, 복종, 강제 노역, 죄짐(1열왕12:4 참조) 등의 의미를 지닌다. 반면, 멩에를 벗는다는 구원이나 해방을 상징한다(창세 27:40 참조). 한편, 함께 멩에를 멘 두 마리의 가축은 ‘거리’로 불리며(1열왕 19:19 참조), 두 마리의 가축이 한나절 동안에 경작한 땅을 가리켜 ‘반일경지단’(半日耕地)이라 하여 당시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도 사용되었다(1사무 14:14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20) 예레 6,16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고 옛길을 물어보아라. 좋은 길이 어디냐고 물어 그 길을 걷고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21) 집회 51,26-27 : 너희 목에 멩에를 씌우고 너희 영혼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여라. 그것은 곁에 있어 찾기 쉽다. 나 자신이 얼마나 적은 노력을 기울여 큰 안식을 얻게 되었는지 너희 눈으로 보아라.

는 것이다.

- 4)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봉사는 기쁨의 '멍에'일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빌며 행한다면 그 멩에는 참으로 가벼울 것이다.